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했던 근원적 대책보다 솜방망이 대책만 내어 결국 부동산 시장참여자들의 내성만 키우게 됐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과 여론청취를 통하여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방법부터 잘못되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이해집단의 저항과 이해 집단에 포획된 정치권의 묵인으로 강력한 대책은 그저 그런 정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 60%부과 방침에서 50%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번 대책으로 실제로 영향 받는 계층도 극소수 2-3% 계층에만 국한되어 영향력도 미비하다. 또한 영향을 받는 계층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세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또다시 투기는 재연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조세저항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기운이 보이거나 정권 교체시 이번 대책은 바뀔 수도 있어 국민 머릿속 깊이 박힌 부동산투자 불패신화는 쉽게 잡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근 2, 3년 사이에 2배 이상 폭등했다. 5억원하던 아파트가 10억원이 되었다면 단기간에 아무 노력 없이 불로소득이 5억원이 생겼는데 보유세를



불자 세상보기

임 배 군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내성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

1%로 천다해도 1천만 원 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겠는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면 이 정도의 세금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힘들다. 1가구 1주택 경우라도 불로소득 성격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

특히 1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경우 양도차익도 큰 만큼 세금을 때겨야 한다. 지방의 1억원 아파트 한 채와 투기지역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동일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조세부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공급중시 정책보다는 수요억 제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번 수도권 미니신도시 건설과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적 아파트 분양 가격책정, 부동산 업자와 아파트 주민의 부동산 가격압박 등 갖가지 불공정 거래관행,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분양광고와 불로소득이 옹인되는 상황 하에서는 판교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급은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다.

난립된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비와 그들의 불공

정 거래관행도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특히 토지 시장에서 수요는 가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지만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실패부분이다. 특히 국토의 가용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며 정부의 시장규제를 비난하는 것은 그럴듯한 명분을 가장한 부동산 과다소유자의 기득권 수호의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나 토지 가격이 폭등한 것은 소유자가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한 정당한 대가인가.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다. 국가가 전혀 환수해야 한다. 불법 불로소득이 합법으로 인정되는 한 누가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인가. 지금의 물꼬를 건전한 경제부문에 흐르도록 해야 경제체질도 튼튼해진다. 투기는 위험 부담을 안고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투기라기보다 위험성 없는 수익보장형 로또다. 세 금정책 이상의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은 부동산시장을 시장실패영역으로 인정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토지공개념 차원에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9월 25일부터 하와이 무량사에서 5주에 걸쳐 일요일마다 간화선 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다. 고명한 선원장스님들을 초청하여 차례로 법문을 청해 듣고 문답을 나누며 참선실수 시간도 가지는 등 무자선회와 같은 행사가 되리라고 한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동시통역으로 법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한국 간화선을 서양인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서양의 물질문명이 인류의 비참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며 동양의 정신문화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견이 실현되는 과정의 일환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근래에 서양에서도 불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동양의 불교문화권에서 각자 자신의 불교전통을 가지고 서양 각지에 진출해서 포교활동을 펴고 있다. 티베트와 일본, 중국, 스리랑카, 타이 등 각 지역의 불교가 나란히 있는 광경을 보면, 과연 그 모두를 불교라는 명칭으로 싸잡아 부를 수 있을

간화선 세계화의 '물꼬' 트길

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채롭다. 거기에 한국불교도 나름의 전통을 들이밀며 끼어들 필요가 있다.

보조국사 지분이 간화선을 소개한 이래 한국 선종에서는 전통적으로 간화선이 핵심 수행법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 한국불교는 조선시대 오백년 동안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간화선을 중심으로 전통을 지켜왔다. 바로 그 전통을 가지고 서양인들에게 선의 중흥을 전해주는 것이 불교의 세계화에서 한국불교가 담당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어떤 종교가 새로운 지역에 진출해서 포교할 때, 현지인 성직자가 배출되기에 이르면 하나의 중요한 고비를 넘는 셈이 된다. 그것이 곧 포교의 일차적인 성과이자 본격적인 토착화의 시발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의 경우에는 재가신도뿐 아니라 출가 수행하는 현지인 승려의 배출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 선종의 해외 포교에서는 현지인 가운데 마침내 출가수행 결행하는 이도 나오며, 그리하여 한국 선종의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을 익히고 현지에서 가르치는 해명(慧命)을 잇게 되면 큰 고비를 하나 넘는 셈이 될 터이다. 이번에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리는 선법회가 그 초석을 닦고 지평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들었다 힘 있는 침묵

"국왕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을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愛語), 이행(例行), 동사(同事)의 사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상상을 초월한 발언들로 인해 정계는 물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대통령직 못해 딱졌다"로 시작된 노 대통령의 상상초월 발언은 "권력을 통째로 내놓는 것도 검토하겠다" "2선 후퇴, 임기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야당의원들의 무분별한 하야론으로 확대 재생산돼 어지러운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입에서 정제되지 않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일련의 발언에서 국민들은 측은지심 보다는 경계마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야당 정치인들까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야' '중증 자아병' 등을 거론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릴 만하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입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기,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라며 한마디 말도 경계할 것을 설했다.

나아가 거짓말, 발림 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을 10가지 중죄(重罪)로 꼽아 살생, 도적질, 음행과 같은 중죄로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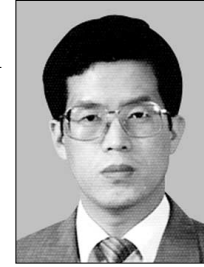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오해를 낳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다. 하물며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힘 있는 침묵'이다. ■박봉영(영재부 기자)

제언

'불교 대안학교'의 필요성

이학승(파라미타 연구위원)



대안학교에 대한 내용이 부족 높고 있다. 한국에서 대안학교 설립 주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종교계이다.

원불교가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등 6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경주 화랑고는 폐교를 활용하여 설립되어 모범적인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개신교는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회원교 7개교 등 15개 학교가 운영되거나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가톨릭은 1998년에 지정된 충북 양양고등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독 불교계는 단 한곳도 없다.

근년에 가톨릭 내부 워크숍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한다.

'개신교보다 이 땅에 훨씬 먼저 들어온 가톨릭이 신자 교세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의도와 복지 쪽에 신경을 쓰느라 학교 교육을 통한 선교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었다 한다.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불교계에서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반면 개신교 내부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하여 급기야 한국사회의 중심에 우뚝 선 가장 큰 공로를 공교육의 틀 속에서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세워 학교선교를 잘 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기독교 학교 선교의 새로운

모색으로 대안학교를 통한 선교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교육과 가정의 위기를 기독교 세계관(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안학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대안학교의 정체성'에 대해 심포지움을 열고 기독교 대안교육의 앞날을 논의한 점을 타산지적의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이 시점에서 불교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육망의 절제와

고 있는 발우공양법이나 참선수행 등을 현대적 교육과정으로 잘 조율한다면 훌륭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또 대중공사 등의 정통 회의법을 화합과 질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의 모범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불교계는 기존 지니고 있는 좋은 여건과 재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깥 세상의 정치적 상황이나 어슬픈 서구식 사회제도 등에 휩쓸려 불교 고유의 정체성과 색깔 있는 포교에 아쉬움이 많다.

주요 종단의 정책의 사 결정 과정이나 사회적 대응 등이 과연 불교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은 것이다. 평화 통일 후를 대비한 동포 교육까지 준비하는 타 종교의 모습, 교파를 초월한 학교 선교 모임 등을 보면서, 원호 스님의 화쟁사상, 통불교 정신을 이웃종교에서나 볼 수 있다는 착각함에 젖어든다.

하지만 시간은 증분하고 미래는 밝다. 불교계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범종단별로 좋은 학교 하나씩 선의의 경쟁을 하자. 누구나 입학하고 싶은 불교정체성을 지닌 학교 만들기를 불교대안학교에서 시작해보자. 원력 있는 곳에 성취가 있다는 믿음으로.

훌륭한 교육적 여건 심분 활용해야

수행을 통한 평화로운 세상, 연기사상에 입각한 모든 생명체와 자연과의 조화를 가르치는 불교사상이야말로 육망과 갈등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하며, 그 이념을 교육의 틀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불교정신으로 이뤄지는 불교대안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한국 불교계는 참선 중심의 수행 생활, 자타불이에 입각한 자연보호 사상, 다양한 명상 수련방법의 공유, 대부분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한 사찰 등의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불교학교의 이념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력과 기술적인 문제만 잘 접합한다면 이상적 교육모형을 이뤄낼 수 있다. 오랜 전통으로 이어지

'연대' 민명

심민섭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19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전생(前世),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상담학 박사 임재형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치면 실천학회장
한국치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체육대학원 겸임교수
KBS 우한지대,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세상 속으로, iTV, TJB, CMB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총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의대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입체 등에서 강의

▶ 무료공개강좌 9월 22일 13:00~16:00까지

▶ 개강안내 9월 23일 10:00~18:00까지 (매주 금요일 7회과정)

▶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일(2시간용 총20개)

▶ 과정별 교재 및 실습예일 제공

▶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빙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주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검쟁세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킴,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회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